

여명

2004년 여름호 (통권 제10호)

• 발행처: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 발행인: 도성숙 • 편집인: 이지영
• 전화 (063) 224-5673 • FAX (063) 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careym@hanmail.net

여명가파의 3대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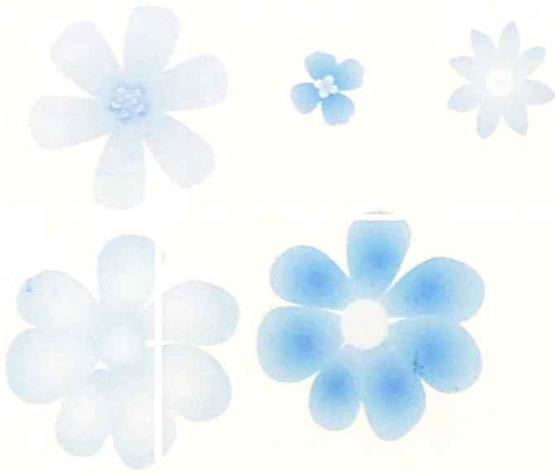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 신고 전화 224-5673 여명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



시편1편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2004년 여름호 (통권 제10호)

여는 글..... 2
 시편1편

목 차 3

재활일기 4~5
 장애인대상자 / 박영진

우수자원봉사사례 6~7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 도·나·지

어르신초청어울림한마당 잔치..... 8~9

상반기 활동사항.....10~11

가정방문 운동요법 12~13
 함께해요 터치터치/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동정..... 14

도움의 손길 - 가족소개15

모집16



표지설명
 걸으면서 함께해요 터치터치를 마치고 어르신과 함께 한 기념 사진

여 / 명 / 가 / 정 / 봉 / 사 / 원 / 파 / 견 / 센터

새로운 삶의 시작

박 영 진 / 평화동

나무와 나무를 문질러야 불씨가 생기고 쇠도 불 속에서 녹아야 쓸모가 있듯이 사람도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다. 나는 요즘 한낮 선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짜증스럽지가 않고 마냥 즐겁고 행복함을 느낀다. 살아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로 장애(障碍)를 입게 된지도 벌써 13년째 흘러가고 있다. 사고 후 처음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만 알고 물리치료도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주치의의 지시에도 잘 따랐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도 팔만 겨우 움직일 수가 있었을 뿐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척수신경 손상은 낫을 수가 없고 예전처럼 원상회복은 꿈조차도 꾸어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결과에 승복 할 수 없어 자포자기 상태로 약 1년여의 병원생활을 보람 없이 마감하고서 아무런 낙(樂)도 흥미도 없이 타인(他人)과의 만남도 꺼리고 스스로를 고립화 시키면서 방문 밖으로는 일절(一切) 나가질 않았었다. 그렇게 허송세월(虛送歲月)로 10여년을 덧없이 보내던 중에 전주시의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여명교회의 여명가정봉사원과건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교회집사님들과 봉사자들이 손수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고 배달까지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싱글벙글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이곳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한 후 도시락뿐만 아니라 가사 및 목욕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시외 각 지역까지도 마다않고 달려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獻身)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남을 위해 자신의 생활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심(利他心) 많은 이들도 있는데 나는 오로지 육체적인 상실감과 좌절감에만 젖어서 정작 중요한 자아(自我)를 잃고 있었던 내 모습에 참회의 눈물과 함께 삶에 대한 의욕(意慾)이 새록새록 쌓여만 가던 차에 전주대학교의 봉사동아리모임인 도나지 회원들이 여명가정봉사원과건센터와 자원봉사결연을 맺고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었다.

두어 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하여 목이나 어깨의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굳은 관절도 자꾸 매만져서 부드럽게 이완(弛緩)시켜주며 이런저런 소소한 집안일도 거들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휠체어 타는 연습이 주된 목표였는데, 처음 휠체어에 앉았을 때에는 심한 현기증이 일면서 눈앞이 캄캄해져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일념(一念)으로 어지러우면 휠체어의 등받이를 높히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조금씩 세워가면서 적응훈련을 반복해 나갔다.

13년만에 휠체어에 앉아 몇 십 미터도 안 되는 대수롭지 않은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삶에 감사함을 느끼리라곤...

그리고 뱃속의 장까지도 놀랐는지 편하지가 않고 요동을 치는데 불안하고 더욱 힘이 들었었다.

그러나 한창 나이인 20대 젊은 대학생들이 금쪽같은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나에겐 더없이 고마우며 고통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지 않았던가!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휠체어에 앉아 활동하려던 소망(所望)이 약4개월여 만에 불완전하지만 드디어 이루어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입구까지 내려가서 땅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한없이 평화스럽고 푸근하게 느껴지는 희열(喜悅)을 맞보았다.

단지 휠체어에 앉아 몇 십 미터도 안 되는 대수롭지 않은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삶에 감사함을 느끼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물(萬物)이 예전과는 달리 보이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어떤 고난(苦難)과 시련(試鍊)이 닥치더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거듭 나고 싶다. 무더운 불볕더위와 방학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재활(再活)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전주대 도나지 회원여러분과 여명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명 가정봉사원과 견센터 직원 및 봉사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에서 뵈게 되기를 고대(苦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2004년 6월 어느날..

평화동에서 박영진 씬.

어떤 고난(苦難)과 시련(試鍊)이 닥치더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거듭 나고 싶다.





자원봉사활동수기

김 정 기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도·나·지"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로 자원봉사를 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자원봉사기관을 발굴하러 다니고, 여러 자원봉사활동을 했지만,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때보다 '자원봉사'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그 가족과 함께하고, 그 가족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무엇보다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집 식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의무적 활동에서 이제 삼촌(박영진님)에게 한명의 조카로써 다가갈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귀한 봉사였습니다.

제가 만약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 삼촌을 대했다면 아마 한 식구처럼 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이기에 삼촌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 우리들에게 힘이 된 것은 삼촌의 자활의지였습니다. 만약 삼촌께서 하기 싫어하시고,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 하셨다면 아마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의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촌의 운동은 매주 1회 이상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몸 상태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뻣뻣한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 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현기증이 많이 없어졌으며, 호흡도 많은 양 조절되었습니다.

삼촌과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1층에서 30분 이상 휠체어에 앉아 함께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삼촌, 제... 기분이 이상해요! 삼촌은 안 그러세요?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같고, 곧 삼촌이랑 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삼촌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작은 미소만 지으셨다. 그렇게 처음으로 삼촌과 외출을 한 날은 내 평생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느낄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된 날이었다.

삼촌은 예전에 갖고 있던 무력감과 절망은 이제 보이지 않고 항상 희망에 부풀어 계신다. "오늘은 휠체어에 1시간을 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는 바깥에 나가 40분 이상 바깥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짐 하시면서 말이다...

가정봉사원활동일지

도움! 나눔! 지킴!

격인 복지를 질타하고 복지 사회의 구현을 위해 도움,나눔,지킴을 외치는 전주대학교의 사회봉사 동아리 도.나.지 20여명의 학생이 상반기 한 학기 동안 주3회이상 본 센터에서 활발한 가정봉사원활동과 기타 행사 도우미를 통해 자원봉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유익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2분의 시각 장애인 어르신과 장애인 2분에게 용변수발, 가사서비스, 말벗과 일상생활도우미 로 활동 하여 어르신들에게 눈과 발이 되어 어려움을 도왔고 가장 큰 성과는 10 여년간을 누워있는 장애인 휠체어 타기 도전에 성공하는 성실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감당하여 예비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한층 높이는 봉사였습니다. 또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어울려 젊음과 열정을 펼치는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더욱 참다운 복지를 알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상황 및 문제점	<p>※ 대가족인 4남매가 적음에 반이상이었다. 어머니도 병중세가 있어보는 소년이었으며, 다락방에 있던 할머니 라는 편을 취락했다 취락에 있는 삼촌이 할머니가 걱정할 지체장애자를 기 감양고, 다른 많은 구박이었다</p> <p>- 심혈관계 질환을 겪고 싶지않았다. 유산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으나, 암과 다른 구멍이 여러 곳에 있어보다 무엇보다도 큰 일이고, 요구해주시기 하나가 김밥과 미음은 크리지만 비주는. 호박과 양파를 주. 나가는 커피 두잔이면 좋겠어</p>
건의 사항	- 다락방에 같이 이복을 일하는 중들이 잘 되거든. 치킨과 구운음. 맛있게 만들어 상한이 바뀔일이 많았다
건의사항 조치	
사회복지사의 의견	



어울림 한마당 잔치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하루

신록이 푸르고 화창한 날!

센터 앞마당의 화려한 철쭉들이 더욱 어르신들을 돋보이게 한 날!

올해에도 5월 1일에 어김없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어울림 한마당잔치가 신명나게 열렸습니다

143명의 어르신과 100여명의 공연팀과 자원봉사자들의 기쁨이 어린 손길을 통해

오늘도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리시고 봉사자들의 특송과 우인호 목사님의 귀한 설교에도 큰 박수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나는 풍물소리, 대금연주, 한국무용, 아코디언 연주, 고등학생의 풋풋한 몸짓을 구경하시며 여러 시름을 내려놓고 즐기셨습니다.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각설이들의 공연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맘껏 봉사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 덩실덩실 춤추시는 어르신의 어깨가 오늘만큼은 마냥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짜~잔 기대하시라~♪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고민 고민하며

준비한 다양한 메뉴의 점심은 역시 이번 행사에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우리와 한 가족처럼 부대끼고 보듬으며 지내시길 소원합니다.

어울림 한마당 시간에는 팀별로 다른 색 모자를 나눠드려

더 새롭게 놀이를 즐기시도록 배려해 드려 땀 흘리시며 여러 게임과 오락을 즐기시는 열정이 아름다우셨습니다.

노래 한가락 까지 하시고 푸짐한 상품까지 한 아름씩 안고 우리들의 사랑까지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는 모습의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 우리들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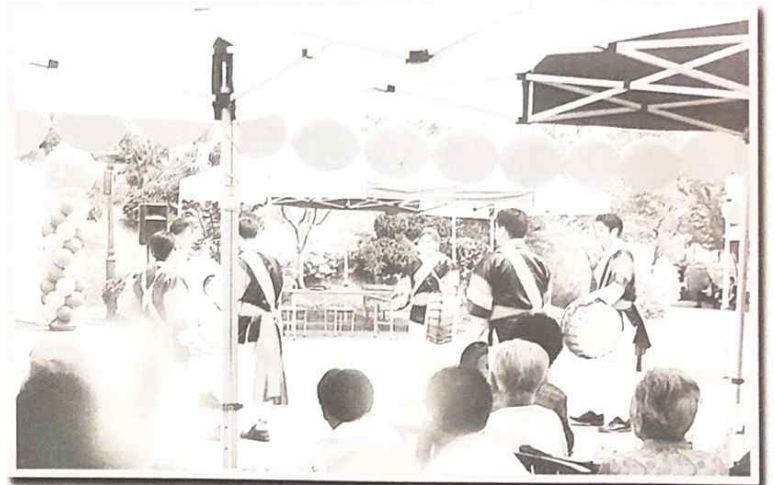
몸을 아끼지 않은 우산소녀의 응원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 설날 명절 물품, 후원금 전달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풍성한 명절 물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돼지고기, 참치 캔, 멸치볶음, 쥐포볶음, 구운 김, 떡국 떡, 떡, 청국장과 과자를 푸짐하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명절이 기다려지신다는 어르신들의 보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근화제약 직원들이 어르신5분을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 5만원과 영양제를 잊지 않고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5월에는 전 대상자에게 후원금 각 3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직원 야유회

추위를 이기고 여러 꽃들이 만발하듯 우리 직원들도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다시 용기를 내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지는 직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산수유가 가득한 전남 구례 산수유마을을 지나 유난히 물결이 빛나는 섬진강과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야유회를 통해 다짐한 각오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본 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 143분의 어르신과 100여명의 공연 팀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빛내주신 여러 손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고 기쁘게 모든 프로그램에 박수를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관심과 사랑에도 힘을 얻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 제2회 전북재가노인초청 효도큰잔치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한국 재가노인복지 협회 전북지회 주최로 전북에 있는 모든 재가 노인 복지 센터들의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부 기념행사와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장끼자랑과 축하공연으로 어르신들이 재밌는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섬기는 우리들의 정성에 더욱 보답하시겠다고 절실 있게 행사 일정을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어르신들과 여러 도움의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각색이 특별공연으로 행사를 더욱 흥겹게 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활동

● 선진기관 방문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시설 함께 사는 집을 방문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였던 김문기님이 함께 거처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이 건강해진 모습에 더욱 기쁜 재회를 가졌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활심을 기르고 한적한 자연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활기찬 생활하시길 기도합니다. 방문을 환영해 주신 귀 기관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

전주 예수병원 통증의학과 이준학 과장님을 모시고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 방문 시 응급상황 대처법을 의료적인 접근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소 가정봉사 활동 중에 대처 하기 어려웠던 의료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가정봉사원의 기본 태도를 배워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함께 활동하고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산 초량 교회 본 센터 방문

부산 초량교회 주최 교회사회복지지원센터 연수생 25명이 본 센터와 어르신 일거리 마련 센터 작업장을 방문하여 본 센터의 사업 소개와 교회사회복지에 필요한 마인드 구축을 위한 교육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먼 길의 피곤한 여정도 있고 복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인상적이었고 돌아가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기꺼히 해 주신 본 센터 대표이사 이신 여명교회 도성숙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걸으면서 함께해요 터치 터치

가정방문 운동요법 함께해요 터치 터치 일환으로 전주 경기전 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다시 보기와 건강교육과 관절운동, 레크레이션등 으로 본 센터 대상자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보람된 하루를 제공 해 드렸습니다.

● 생신 축하

상반기에도 박기순 어르신 외31분의 생신을 축하 해드렸습니다. 케익 촛불을 밝히고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손수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함께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한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있어 행복합니다.





건강한 노후. 즐거운노후. 활기찬 노후 가정방문 운동요법 함께해요 터치!터치!

2001년부터 대상자들의 큰 호응과 성과 속에 진행되었던 방문간호 사업 몸 사랑 마음 사랑에 이어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가정방문 운동요법 함께해요 터치! 터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1회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절운동과 근육 마사지를 수행하고 2회 걷기 대회, 전문 강사 초청과 비디오 활용교육,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 봉사자 양성에 노력하고 후반기에는 주간보호 형태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4 '04

걸으면서 함께해요 터치 터치 행사의 날!



2004. 6. 24 일 67분의 어르신과 20명의 봉사자들이 경기전 경내를 걸으면서 초록의 짙은 향기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문화 유산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경기전에 대한 역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전에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간식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의 대한 교육용 판넬을 전시하고 맛있는 점심을 드신 후 교육하였습니다.

예수병원 이준학 과장님의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레크레이션과 관절운동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에게 장운동에 사용하는 탱탱볼을 지원 하였습니다.





센터 및 직원 동정

- 2월 9일에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사회복지 정예화캠프 교회사업팀을 방문 하여 간식 전달 함.
- 2월 9일에 2004 사업소개 위한 전북 재가협회 모임이 샬롬 가파에서 있었음.
- 2월 12일 제9차 전국 사회복지대학 정예화캠프 교회사업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 함.
- 2월 14일 전국 교회사회사업실천가 모임의 팀원7명이 본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소개와 점심을 대접 함.
- 2월 18-20일에 제39기 무급가정봉사원 교육에 3인이 수료 함.
- 2월 20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정기 총회 참석(오전 11시 대전유성호텔 우강숙원장 참석)
- 3월 26일 원광보건대 케어복지학과 실습생 2명을 7월2일까지 현장실습을 지도 함.
- 4월 20,21일에 제14차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재가노인복지세미나에 이지영 사회복지사 참석 함.
- 5월 17-21 제9기 유급봉사자교육에 1인이 수료함.
- 6월 3-5일에 전주 근영중학교 학생4명이 본 센터에서 사회봉사 수행 함.
- 6월 18일에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전주대학교 봉사동아리 도.나.지팀의 평가회가 본 센터에서 있었음.

대상자 동정

- 이점순, 이임순, 강영희, 박옥희 어르신을 장기 출타 및 이사로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양금선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진북동 수 정형외과에 약 6개월간 입원하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지역복지 대상자 권춘만님이 시설로 입소하셨습니다.
- 박길수, 강귀례 할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수래, 송순래, 조순애, 이숙정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봉사자 동정

- 매월 3째주 화요일에는 방문 간호팀 정기 모임이 있고, 4째주 수요일에는 가정봉사원 월례회가 본 센터에서 있습니다.
- 대청소 실시
신기순 할머니, 장애인 대상자 박인권, 박영대, 오두영: 양인순, 김현아봉사자
최순화, 박복순 어르신: 여명교회 청년부
박복순 할머니: 여명교회 중·고등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미용 서비스
이옥순 할머니, 장애인 대상자 김영자님: 윤미래 봉사
한일장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 오주랑학생이 장애인재가방문에 동행봉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푸르덴셜 호남지부 직원 7명이 장애인 재가 서비스에 동참 하였습니다.
- 봉사자 결연을 환영합니다!
박순덕(김경순): 김희애, 한수영(한일장신대)
박동안, 김이순: 강에스더, 임선영, 임소연
최몽신: 이성희, 정은혜, 최명신, 김병현, 최진
김옥윤(박영진): 김정기, 김성철, 지명아, 김동관,
김영자: 황해숙, 김방운, 백명숙
신점너: 차정숙, 강세실리아, 전하늘,
유옥니: 이효정, 소은진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가족

후원 가족 (2004. 1 - 2004. 6)

...물건후원

강원봉, 고정배, 고찬배, 고희석, 권순복, 김동희, 김용안, 김윤일, 김임수, 김진산, 김정숙2, 김창주, 김현석, 노경철, 나효옥, 노영숙, 노인숙, 문영선, 박노진, 박은영, 박봉기, 소점례, 신순미, 양수진, 양유순, 오동철, 오동환, 유 미, 유정자, 이금자, 이석길, 이석봉, 이석연, 이세라, 이점례, 이점순, 이정우, 임현주, 정숙희, 정순경, 조옥선, 지은정, 진오범, 최봉남, 최정애, 형남만, 형복희, 여명교회제2청년부, (유)전주마트, 이마트전주점, 진보쇼핑, 대흥정관사

...물품후원

강인농장, 김종락, 손인섭, 전중세, 일한의료기
 승현상사, 전주마트 제과점, 동일농장(송순모), 한국식품, 하나로떡집, 봉유통,
 삼천동농수산물시장(과일,수산), 칠칠수산(송천동), (주)하선정종합식품(전북총판),
 송천동건어물시장(8번, 70번, 90번), 효자식품, 한빛농산, 하림전주대리점, 진미식품
 풍년제과(중화산동), 대림상사, 국민소금, 형제유통(시문식품), 마트유, 진보쇼핑, 떡자랑 떡집
 이마트 이금자(참치캔, 구운김), 윤숙자(청국장), 청수골 식품, 김제, 전주푸드뱅크,
 살롬가정봉사원파견센터(발효간장)

...어르신 초청 어울림행마다 잔치에 도움 주신 분들

박양섭(바나나), 현대 정육점, 코러스 마트 정육 코너, 진보쇼핑 정육코너, 진보쇼핑,
 마트 유, 동서로 마트, 원조떡집, 삼남양금, 계수나무떡집, 낙원떡집, 푸른장수 고기나라,
 늘풍성한 한우촌, 천사(상록수)꽃집, 유토피아아이스크림, 농협 전주하나로 마트, 이마트,
 하림 전주대리점, 하림 완산대리점, 전주승현특판, 노영숙, 박은영, 이금자, 오동환, 정숙희

...같은 면서 함께해요 터치터치에 도움 주신 분들...

삼남양금, 농협전주 하나로마트, 대주상사, 박부경(아이스크림), 근화제약, 우리정다운 약국

자원봉사자 가족

김성희, 김희애, 김옥자, 김현아, 노승주, 박지숙, 백경미, 박은영, 양인순, 윤미례, 이미경, 이병재,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정영란, 조운주, 주미애, 최명순, 최 현, 김기현, 김길순, 김요셉, 김은경, 김종문, 김종철,
 김화영, 노영숙, 노정숙, 라병수, 박래승, 서명례, 오주랑, 양기순, 양유순, 양은인, 양효남, 우영동, 이승환,
 이소영, 정숙희, 조계석, 한수영, 천홍지, 최영순, 여명교회중·고등부, 이미숙, 유준원, 김미예, 김윤일, 김남주,
 정순경, 이보라, 윤석연, 송연태, 송진화, 채영병, 푸르덴셜 호남지부, 전주대학교 도·나·지(20명), 김아름,
 박혜림, 강민지, 김보라, 최유리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우 체 국 400010-01-011708

국민은행 501-01-0601-523
 농 협 658-01-002798



모

집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정봉사원	말벗, 세탁, 설거지, 청소, 식사보조, 목욕, 병원동행, 행정업무대행, 시장보기, 책·신문읽어 주기 등
차량봉사자	장애인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어르신 병원동행, 방문간호서비스, 후원물품운반 등
후원자 (현금·현물)	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결연후원
기타	방문간호사, 의료봉사, 이·미용, 주택보수, 방역·월동준비(보일러) 등

여 · 명 · 가 · 정 · 봉 · 사 · 원 · 과 · 건 · 셴 · 터

TEL. (063) 223, 224-5673 / FAX. (063) 224-6896/e-mail : careym@hanmail.net